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 불균형 이론 관점

김민영 | 캔자스 대학 조교수

본 에세이는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를 불균형 이론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에 대한 연구는 국제 경영 연구의 초창기부터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개발도상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이들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새롭게 진행되어 왔다. 불균형 이론은 개발도상국 다국적 기업의 탐색적 해외직접투자 현상을 전략적 자원의 불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립한 연구로서 활용적 해외직접투자론과 탐색적 해외직접투자론을 포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본 에세이에서는 먼저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불균형 이론이 해외직접투자 연구에 기여하는 점과 그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어: 다국적 기업, 해외 진출 동기, 불균형 이론

I. 서론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국제 경영 분야의 중요한 연구 질문들 중 하나로서 국제 경영 연구의 초창기부터 선진국 다국적 기업 사례들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 되어 왔다. 이들 연구들은 크게 전략적 행동론(strategic behavior) 관점과 거래 비용/내부화(transaction cost/internalization)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Dunning, 2003; Kogut, 1988; Tallman, 1992; Kim et al., 2015). 독점적 지대(monopolistic rent)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행동론 관점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로 직접 진출하는 동기로 경쟁의 감소, 독점적 우위의 활용, 선두 기업 추적, 과점적 상호작용, 다각화, 위험 분산 등을 제시하였다(Bain, 1956; Hymer, 1960/1976; Kindleberger, 1969; Knickerbocker, 1973; Graham, 1974). 반면, 시장 불완전성(market imperfections)에 기반을 둔 거래 비용/내부화 관점에서는 국제 시장에서의 거래가 기업 내부의 거래보다 높은 거래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기업들이 해당 거래를 내부화(internalize)하고자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한다고 설명한다 (Coase, 1937; Williamson, 1975; Buckley and Casson, 1976; Rugman, 1981; Hennart, 1982).

Dunning(1977; 1979)은 앞서 논의한 전략적 행동론 관점과 거래 비용/내부화 관점을 통합하여 다국적 기업이 성공적인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필요조건을 OLI(ownership-specific advantage, location-specific advantage, and internalization advantage) 패러다임으로 정립하여 국제 경영의 주요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Tallman, 1992; Kim et al., 2015).

II. 새로운 현상, 새로운 동기, 새로운 이론

앞서 논의한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이론들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기업 특유의 우위(ownership-specific advantage)를 활용(exploit)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Moon and Roehl, 1993, 2001; Makino et al., 2002; Kim et al., 2015). 즉, 기존 연구들은 기업들이 시장 기제의 구조적(structural) 및 거래적(transactional) 불완전성(market imperfection)으로 인해 시장 기제를 통해서 해외로 이전하기 힘든 기업 특유의 우위를 활용(exploit)하고자 해외직접투자를 한다고 주장해 왔다 (Dunning and Rugman, 1985).¹ 이 과정에서 기업 특유의 우위가 외국 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Hymer, 1960, 1976; Zaheer, 1995), 기존 연구들은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본국과 경제 발전 단계가 유사하거나 낮은 국가에 해외직접투자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이 기업 특유의 우위를 활용하고자 개발도상국/후진국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Moon and Roehl, 2001; Makino et al., 2002).

하지만 최근 개발도상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이들 기업들의 해외 진출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새롭게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들은 이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활용적 해외직접투자(exploitative FDI) 이론과 대비되는 탐색적 해외직접투자(explorative FDI) 이론들을 제시하였다(Moon and Roehl, 2001; Makino et al., 2002; Kim et al., 2015). 기존의 활용적 해외직접투자론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기업 특유의 우위를 활용하여 (천연)자원 획득, 시장 확보, 효율성 제고(Dunning,

1.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theory of FDI (i.e., international production) is primarily about the transfer of nonfinancial and ownership-specific intangible assets by the MNE, which needs to appropriate and control the rate of use of its internalized advantage(s)……” (Dunning and Rugman, 1985, p. 228).

2000)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개발도상국/후진국에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는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탐색적 해외직접투자론에서는 기업 특유의 열위(ownership disadvantage)를 완화하고자(Moon and Roehl, 1993, 2001; Luo and Tung, 2007), 현지 기술 확보, 전략적 자원 확보 및 증강(Kogut and Chang, 1991; Dunning, 2000; Makino et al., 2002) 등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선진국에 직접투자하는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논의한 OLI 패러다임도 초기 연구(Dunning, 1977, 1979)에서는 활용적 해외직접투자의 관점에서 기업 특유의 우위를 성공적인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제시하였지만, 이후 연구(Dunning, 1995, 2000)에서는 탐색적 동기도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Kim et al., 2015).

III. 불균형 이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활용적 해외직접투자론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기업 특유의 우위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후진국 시장에 진출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이론에서는 기업 특유의 우위가 성공적인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고려되었는데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 특유 우위를 활용하여 외국 비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활용적 해외직접투자론의 관점에서는 기업들이 기업 특유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외직접투자를 성공시킬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기업 특유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기업 특유의 열위(ownership disadvantage)로 인해 경쟁력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에 처해있다. 따라서, 기업 특유의 우위를 성공적인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존의 활용적 해외직접투자론 관점에서는 개발도상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활용적 해외직접투자론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탐색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론들이 개발되었는데(Moon and Roehl, 1993, 2001; Makino et al., 2002; Luo and Tung, 2007), 불균형 이론(imbalance theory)(Moon, 1988; Moon and Roehl, 1993, 2001)은 개발도상국 다국적 기업의 고유한 해외 진출 동기를 탐색적 해외직접투자론의 관점에서 연구한 이론의 효시이다(Moon, 2004). Penrose(1959)의 기업성장론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는 불균형 이론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근본적인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업 내 전략적 자원의 불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It is inadequate, however, to argue that the ownership advantage is the only direct source of FDI. The fundamental motivation for FDI is the “imbalance” of factor inputs at a certain level of optimal output which is determined by the firm’s critical factor, say, technology. The traditional (ownership-advantage) approaches consider just the ex post phenomenon of the last stage of FDI procedure, but neglect the whole mechanism (Moon and Roehl, 1993: 58).”

기존의 활용적 해외직접투자론에서는 기업 특유의 우위를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조건으로 보았지만 불균형 이론은 기업들이 기업 특유의 우위와 열위 간의 불균형(“an imbalance betwee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the firm’s portfolio of resources that drives FDI”)을 국내에서 해소할 수가 없을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된다고 제시하였다(Moon and Roehl, 2001: 209). 즉, 기업들이 기업 특유의 우위를 다른 국가에서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해외직접투자를 한다는 활용적 해외직접투자론과는 대조적으로, 불균형 이론에서는 기업들이 기업 특유의 열위를 완화하기 위해 본국에 존재하지 않는 보완재를 확보하고자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기업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균형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Firms choose to invest when they expect better returns from their firm-specific assets in other countries. It is just as likely that an asset in

which the firm has a deficiency will drive the firm to invest abroad, as the firm searches abroad for complementary assets not available at home that will again bring its asset portfolio back into balance.(Moon and Roehl, 1993: 56)”

사실 기존의 활용적 해외직접투자론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근본적인 동기보다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² 나아가 기존 이론은 본질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모종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현상의 본질을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사후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Moon and Roehl, 1993). 이와 대조적으로 불균형 이론은 해외직접투자의 근본적인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기존 활용적 해외직접투자론이 “성공에 필요한 요건(what does a firm need to be successful abroad?)”으로서 기업 특유의 우위에 초점을 맞춘 반면 불균형 이론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동기(what is the fundamental motivation for a firm to go abroad?)”에 대한 답을 가능하게 하였다.

“The key question necessary to explain FDI is “what is the fundamental motivation for a firm to go abroad?” This is a subtle but important difference from the way the question is posed in the established theory, “what does a firm need to be successful abroad? (Moon and Roehl, 1993: 56)”

나아가 기존의 활용적 해외직접투자론에서는 기업이 이미 확보한 자원 시장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불균형 이론에서는 기업이 확보하지 못한 전략적 자원 시장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써, 불균형 이론은

2. “Their main concern is to identify a type of ownership advantage which gives the firm a competitive edge in doing business abroad.” (Moon and Roehl, 1993, p. 56)

기존 활용적 해외직접투자론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 즉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여 기업 자산 포트폴리오의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 그 동기 및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The essential variable in explain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s market failure. Unfortunately, existing theories of foreign investment have focused only on the failures in the market for existing assets. We argue in this paper that this theoretical approach cannot adequately explain the increasingly important foreign investments of firms seeking to add to their set of resources, redressing an imbalance within their firms. An imbalance theory can explain why these firms, faced with failures in the markets for resource accumulation, enter foreign markets without the asset base predicted by existing theory. They do so to access the resources necessary to redress the imbalance (Moon and Roehl, 2001: 197-198).”

IV. 결론: 불균형 이론의 기여 및 함의

불균형 이론은 해외직접투자론 및 국제 경영 연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첫째, 불균형 이론은 단순히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근본적인 메카니즘을 전략적 자원의 불균형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이론이다.

둘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불균형 이론은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에 대한 근본적인 메카니즘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였고 이를 통해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하였다. 즉, 기존 활용적 해외직접투자론이 “성공에 필요한 요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불균형 이론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동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불균형 이론은 기존의 활용적 해외직접투자론을 확장하여 선진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

도 전략적 자원의 불균형이라는 메카니즘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 현상의 다양한 면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넷째, 불균형 이론은 모델링, 국제 생산의 동적인 분석, 다국적 기업의 투자철회 등의 측면에서 OLI 패러다임 및 해외직접투자론 발전에 기여하였다 (Dunning, 1988; Moon, 1988; Moon and Roehl, 1993). 나아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의 개념과 전략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Moon, 2016a, 2016b).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불균형 이론은 개발도상국 다국적 기업의 탐색적 해외직접투자 현상을 전략적 자원의 불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립한 선구자적인 연구이다. 나아가 불균형 이론은 활용적 해외직접투자론과 탐색적 해외직접투자론을 포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론 및 국제 경영 연구의 발전에 한 획을 긋는 큰 기여를 하였다.

투고일자: 2018-05-16 심사일자: 2018-05-25 게재확정: 2018-05-28

참고문헌

- Bain, J. 1956. *Barriers to New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ckley, P. J. and M. Casson. 1976. *The Futur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Macmillan.
- Coase, R. H.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4(16): 386-405.
- Dunning, J. 2003. "Some Antecedents of Internalization Theor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4(2): 108-116.
- Dunning, J. H. 1977. "Trad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MNE: A Search for an Eclectic Paradigm." In Ohlin, B., Hesselborn, P.-O. and Wijkman, P. M. (Eds.), *The International Al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Proceedings of a Nobel Symposium held at Stockholm*: 395-418. London: McMillan.
- Dunning, J. H. 1979. "Explaining Changing Patterns of International Production: In Defense of the Eclectic Theor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 Statistics*, 41(4): 269-295.

- Dunning, J. H. 1988. "The Electric Paradigm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 Restatement and Some Possible Exten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1): 1-31.
- Dunning, J. H. 1995. "Reappraising the Eclectic Paradigm in an Age of Alliance Capitalism."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6(3): 461-491.
- Dunning, J. H. 2000. "The Eclectic Paradigm as an Envelope for Economic and Business Theories of MNE Activity."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9(2): 163-190.
- Dunning, J. H. and A. M. Rugman. 1985. "The Influence of Hymer's Dissertation on the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75(2): 228-232.
- Graham, E. 1974. *Oligopolistic Imitation and Europea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Hennart, J. F. 1982. *A Theory of Multinational Enterprise*. Ann Arbor, Mich: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ymer, S. 1960/1976.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Cambridge, MA: MIT Press.
- Kim, M., J. T. Mahoney, and D. Tan. 2015. "Re-conceptualising Exploitative and Explorative FDI: A Balancing-Process Approach to Firm Internationalisa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9(5): 537-565.
- Kindleberger, C. 1969. *American Business Abroa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nickerbocker, F. T. 1973. *Oligopolistic Rea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Kogut, B. 1988. "Joint Ventures: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9(4): 319-332.
- Kogut, B. and S. J. Chang. 1991.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3(3): 401-413.
- Luo, Y. and R. L. Tung. 2007. "International Expansion of Emerging Market Enterprises: A Springboard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8(4): 481-498.
- Makino, S., C. M. Lau, and R. S. Yeh. 2002. "Asset-Exploitation versus Asset-Seeking: Implications for Location Choi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3(3): 403-422.
- Moon, H.-C. 2004. "The Evolution of Theor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Review of Business History*, 19(1): 105-126.
- Moon, H. C. 1988. *Firm-specific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me Selective Industri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Moon, H. C. 2016a. *Foreign Direct Investment: A Global Perspective*. Singapore: World

Scientific.

- Moon, H. C. 2016b. *The Strategy for Korea's Economic Succ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on, H. C. and T. W. Roehl. 1993. "An Imbalance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Multinational Business Review*, 1(1): 56-65.
- Moon, H. C. and T. W. Roehl. 2001. "Unconventional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Imbalance Theory."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0(2): 197-215.
- Penrose, E. T. 1959.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New York: John Wiley.
- Rugman, A. M. 1981. *Inside the Multinationals: The Economics of Internal Marke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Tallman, S. B. 1992. "A Strategic Management Perspective on Host Country Structure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Journal of Management*, 18(3): 455-471.
- Williamson, O. E.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A Study in the Economics of Internal Organization*. New York: Free Press.
- Zaheer, S. 1995. "Overcoming the Liability of Foreignn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2): 341-363.

Motivation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Imbalance Theory Perspective

Minyoung Kim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Kansas

This essay discusses the motivation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from the imbalance theory perspective. Since the inception of the field, studies on international business have extensively investigated FDI motivation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from developed countries. With the increasing FDIs of MNEs from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recent studies have started shedding new light on the FDI motivations. The imbalance theory is one of the first theories that attempt to understand the unique FDI motivations of the MNE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essay, I first review the literature on FDI motivations and then discuss the contribu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imbalance theory.

Keywords: multinational enterprises, motivation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mbalance theory

